

照明
實錄

鄭夢周의 後裔들

李在範

(實錄研究家·人間文化財)

「이몸이 죽고 죽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너무나도 유명한 정 몽주(鄭夢周)의 단심(丹心)의 시조이다.

그는 태산이 무너지는 고려(高麗)의 하늘을 그 가냘픈 선비의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다가 고려 공양왕(恭讓王) 4년 4월 4일에 개경(開京=開城) 선죽교(善竹橋)에서 이 방원(李芳遠=조선태종)의 부하인 조 영규(趙英珪) 등에 의하여 급기야 격살(擊殺)을 당하였다.

그날 정 몽주는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진 이 성계(李成桂=조선태조)를 문병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러한 변을 당하였던 것이다.

정 몽주가 이 성계의 문병을 마치고 나오자 이 방원은 넉넉시 정 몽주의 의향을 떠보기 위하여 한 귀절의 시조(時調)를 읊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렁침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한 세상…….』

이것을 “하여가”(何如歌)라 한다.

이제 고려의 천하는 기울어졌으니 우리(조

선)에게 협력하는 것이 어떠하나?는 뜻이다. 그러나 불사이군(不仕二君)의 굳은 충절을 가진 정 몽주는 냉냉히 단심가를 읊어 일백번을 죽는 다해도 고려를 섬기는 충절을 바꿀 수는 없다고 응수 하였다.

이 방원은 그러한 정 몽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자 그의 심복인 조 영규 등을 선죽교에 매복시켰다가 마침내 그를 죽여 버렸던 것이다.

천고의 충신으로 추앙 받는 정 몽주. 그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왕조실록(王朝實錄)에서 그 자취를 찾아 본다.

성종(成宗) 10년 7월 16일, 정몽주의 (증손(曾孫)인 장흥고 주부(長興庫主簿) 정윤정(鄭允貞)은 다음과 같은 상소문(上疏文)을 올렸다.

「나라의 법에 비빈(妃嬪=왕비 후궁)의 제도가 세 사람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전하께서는 지금 다섯분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이 오히려 부족하다 하여 이제 또다시 후궁(後宮)을 선발한다 하오니 이는 전하가 점점 색황(色荒)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國家妃嬪之制 無過三殿 今已五矣 猶不足 又有處女之選 無乃有色荒之漸乎)

이것은 그때 성종이 후궁을 선발하고자 하는데 대한 항의의 상소이다. 성종의 후궁 선발이 법도에 어긋났다 하여 지방의 말직인 일개 주부(主簿)가 한나라의 제왕에게 「색황(色荒) 운운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그때의 제도로서는 누구든지 국정에 관한 의견을 상소할 수 있는 언로(言路=言論)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언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히 임금을 두고 그렇듯 과격한 상소를 거침없이 올렸다는 것은 그때의 우리나라 선비들의 기질이 얼마나 강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거니와 그와 함께 그것은 또한 정몽주 후예들의 혈통적 강직한 기질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선조(宣祖) 32년 4월. 정 몽주의 6대손인 정

자번(鄭自蕃)과 자방(自芳)은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난 사람들이다.

그때 그들 형제는 부친의 상(喪)을 당하여 애통속에 빠져 있었다. 하늘에서는 연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장마가 되어 좀체로 개일 것같지 않았다. 장례의 날로 정한 그날은 눈앞에 다가왔으나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 형제는 하늘에게 비를 거두어 달라고 빌었다. 그러던중 장례의 날이 되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어제까지 그렇게도 쏟아지던 비가 씻은듯이 맑게 개였다. 정 자번 형제는 그들의 선친 장례를 차질없이 치루었다.

그들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하늘은 다시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히면서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 형제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 시킨 것인가. 「지성이면 감천(感天)」이란 옛 말을 다시 생각해 한다.

정 자번 형제는 그 아버지의 묘소(墓所)에 석물(石物)을 세우는 것이 큰 소원이었다.

그러나 찢어질듯이 가난한 그들의 처지로서는 그러한 소원을 전혀 풀길이 없었다.

그렇듯 안타까운 심정으로 묘소를 돌아보던 어느날. 앞아가던 형이 소리를 질러 아우를 불렀다.

『아우님 속히 와보게. 저, 저것이 무엇인가?』

뒷켄에 떨어져 있던 자방은 급히 달려갔다. 그리하여 형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도 깜짝 놀랐다.

『아, 저것은…….』

거기서 멀지않은 산골짜 한 곳이 장마비에 무너져 있었다. 그 무너진 산속에서 영롱하게 반짝이는 돌 무덤. 그것은 수정(水晶)이었다.

『형님! 이것은 수정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수정이야 수정!』

그 수정은 과연 몇 말이나 되었다.

『어허. 이것은 하늘의 도움이구나.』

그들 형제는 그것이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라 생각하고 하늘에게 감사의 뜻을 고하는 고유제(告由祭)를 지낸 다음에 그 수정을 캐어서 오매불망 소원하던 석물(石物)을 마련하여 그 아버지의 묘소를 꾸몄다. 이 기록은 선조 32년 5월 14일자에 적혀있다.

숙종(肅宗) 25년 4월 13일. 지경연사(知經筵事) 이 유(李濡)는 왕에게 강(講)을 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난날 세조(世祖)때에 고려충신 정 몽주(鄭夢周)의 손자인 감찰(監察) 정보(鄭保)는 세조의 훈신(勳臣)인 한 명회(韓明澮)의 집에 들렀다가 때마침 한 명회가 사육신(死六臣) 성삼문(成三問)을 모진 고문으로 극형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급히 대궐로 달려가서 한 명회에게 옥설을 퍼부었습니다. “성삼문·박팽년(朴彭年) 등의 충신들을 그대는 참혹하게 죽였으니 그대의 악명(惡名)은 영원히 남으리라!” 한 명회는 정보로부터 심한 매도를 당하자. 그 길로 가서 세조에게 아뢰어 정 정보를 잡아서 국문을 하게 하였습니다. 정 정보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러한 말을 하였노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에 크게 노한 세조께서 정 정보를 즉시 처형토록 영을 내렸다가 그가 충신 정몽주의 후손임을 알고 충신의 후예라하여 특히 일등(一等)을 감하여 유배(流配)를 내라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뜻이 그러 하였음에도 간사한 무리들이 누차에 걸쳐 그를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는 끝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하께오서는 장릉(莊陵=端宗)도 이미 복위(復位)를 시켰으니 단종을 위하여 그렇듯 충절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정 정보를 신원(伸冤) 하시옵소서.』

숙종은 이 유로부터 정보에 관한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이조판서 신완(申琬)에게 조사 보고토록 영을 내렸다.

임금의 명을 받은 신관은 사관(史官) 등을 대동하여 사고(史庫)에 보관된 실록(實錄)과 기타 문헌을 조사한 결과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왕에게 보고했다.

숙종은 곧 정보를 신원하고 그 관작을 회복해 주었다.

태종(太宗)이 고려 말기의 충신인 정몽주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천운에 따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부득이한 일이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태종은 그를 천고(千古)의 충신이라 하여 못 선비들의 귀감으로 삼게 하였다. 태종은 정몽주에게 충신(忠臣)의 시호(諡號=죽은 뒤 그 공적을 평가해서 내리는 예칭)를 내려 사당을 지어서 모시게 했다. 그리하여 그 후손들을 등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길이 향화(香火)를 받들게 하였다.

그러나 숙종조에 이르러 그의 봉사손(奉祀孫)인 정호(鄭鎬)가 후사가 없이 사망하니 정몽주의 사당을 받들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자 숙종은 36년 2월 30일에 영을 내려 정호의 조카인 정도제(鄭道濟)를 불러 그에게 벼슬과 품록(稟祿)을 주어 정몽주의 사당에 향화를 잇게 하였다.

영조 12년 8월 1일. 그때 세자(世子)의 스승으로 있던 우찬성(右贊成) 정제두(鄭齊斗)가 죽었다. 그는 자(字)를 사양(士仰)이라 했으며 정몽주의 후손이다. 그는 평소에 자질이 영특하고 밝아서 일찌기 도학(道學)에 통달하였을뿐 아니라 제정사리(諸政事理)와 갑병전곡(甲兵錢穀), 백가술수(百家術數)에 이르기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강화(江華)에 복거(卜居)하여 일체의 관직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은 정제두의 명망이 널리 퍼지자 숙

종은 그에게 육품(六品)의 벼슬을 내려 그를 불렀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아니했다. 숙종은 그에게 대성(臺省)의 중앙직과, 방백(方伯)의 지방직을 주었으나 그는 벼슬 길에 나아가지 아니했다.

그후 영조(英祖)가 즉위하자 간곡한 글을 보내어 정제두를 불렀다. 그러자 그는 비로소 지방의 수령직(守令職)을 맡았다. 정제두의 치적(治績)은 온 나라안에 떨쳤다. 영조는 그를 더욱 중용하였으며 마침내 그의 벼슬은 일품적인 우찬성(右贊成)과 세자이사(世子貳師=세자의 스승)에 이르렀다. 그의 대쪽같은 기품은 널리 사림(士林)의 추앙을 받았으며, 그 청렴성은 못 벼슬아치들의 귀감이 되었다.

세상에서는 그의 덕을 흠모하여 하곡선생(霞谷先生)이라 불렀다. 그가 88세에 졸하니 영조는 크게 슬퍼하였으며 후한 예장(禮葬)을 치르게 하고 「문강(文康)」이란 시호를 내렸다.

영조 16년 9월. 왕은 개경(開京=開城)을 순행하다가 제릉(齊陵=태조의 비 神懿王后 韓氏)과 후릉(厚陵=定宗과 그 비 金氏)을 전알하고 이어서 승지(承旨)를 보내서 고려 왕건태조(王建太祖)의 능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

영조는 만월대(滿月臺)에서 문무관(文武官)의 과거(科擧)를 보여 전 흥제(田興齊) 등 10인을 뽑았다. 그날 특히 왕씨(王氏)의 후예인 왕제도(王齊道)에게는 훈련주부(訓練主簿)의 벼슬이 내려졌다.

그해 9월 3일. 영조는 선죽교에 이르자 고려 충신 정몽주를 추모하기 위하여 「도덕정충환 만고태산고절(道德精忠 亘萬古泰山高節) 포은공(甫隱公)」이란 친필을 내려서 비석에다 새겨서 그곳에 세우도록 하였다.

賞罰은 國家의 大典이니, 한 사람을 賞하므로서 천만인이 힘쓰며 한 사람을 罰하므로서 천만인이 두려워 하느니라. 그러나 공명정대치 않으면 그 바름을 얻어 일국의 人心을 悅服시킬 수 없는 것이다.

-정몽주(1337~1392) -